



74위 조지아 '대반란'... 포르투갈 격침

<6위>



2-0 승리 따내고 첫 16강행... 유로2024 최대 이변 프랑스-벨기에 2일 오전 1시 8강 다툼 빅매치 성사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에서 최대 이변은 동유럽의 소국 조지아가 연출했다. 처녀 출전한 조지아의 승리는 유로 대회 역대 최대 '업셋'이다. 업셋이란 하위 순위 팀이 상위 순위 팀을 이기는 것을 뜻한다. 물론 유로2024 첫 16강 진출이다. 국제축구연맹(FIFA)랭킹 74위에 불과한 조지아는 27일(한국시간) 독일 쾰른의 아레나 아우구스투에서 열린 유로 2024 조별리그 F조 최종 3차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FIFA랭킹 6위의 포르투갈을 2-0으로 격파했다. 이날 승리로 1승1무1패(승점 4)가 된 조지아는 6개 조의 3위 팀 가운데 성적 상위 4개 팀 안에 포함돼 어렵게 16강행 티켓을 따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인 1992년 유럽축구연맹(UEFA)에 가입한 조지아는 올해

사상 첫 유로 출전에 이어 16강까지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조지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막자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이변을 쓴 조지아는 '언더독 정신'으로 무장한 게 승리의 비결이었다. 작은 팀으로 잃을 게 없이 후회없는 경기를 펼치자는 정신력으로 무장했다.

전력상 우위가 확실했던 포르투갈은 공격 점유율 73%-27%, 슈팅 수 22-7을 기록하며 맹공을 퍼부었으나 전반 2분 흐비차 크라바츠헨(나폴리)과 후반 12분 기오르키 마카우타제에게 연속으로 실점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조지아는 이번 대회 출전 24개국 가운데 FIFA랭킹이 가장 낮다. 포르투갈은 프랑스(2위), 벨기에(3위), 잉글랜드(5위) 다음으로 순위가 높다. 더구나 포르투갈에는 스타선



조지아 축구대표팀의 주장인 구람 카시야(오른쪽 두 번째)가 27일(한국시간) 유로2024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뒤 동료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EPA=연합뉴스

수도 즐비하다. '세기의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가 여섯 번째 유로 무대를 누비고 있다. 브루누 페르난즈(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베르나르두 실바(맨체스터 시티) 등 세계적인 미드필더들도 있다. 다만 포르투갈은 체코와 튀르키예를 연파해 16강 진출을 확정했기에 휴식 차원에서 페르난즈와 실바를 이날 내세우지 않았다.

세계적인 공격수로 올시즌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득점왕인 호날두는 이번 조별리그

3경기동안 단 한골도 기록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주요 국제대회 조별리그에서 처음으로 득점이 없었다. 앞서 호날두는 10차례의 유로(2004, 2008, 2012, 2016, 2020년)와 월드컵(2006, 2010, 2014, 2018, 2022년) 조별리그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득점한 바 있다.

전반 2분 포르투갈의 패스 실수를 끊어낸 조지아는 그대로 역습으로 전개했고, 흐비차 크라바츠헨(나폴리)은 왼쪽 페널티 지역에서 왼발 슛으로 포문을 열

었다. 후반 12분에는 기오르키 마카우타제가 페널티킥을 성공해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월리 사를 감독은 "아직 대회 중이라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 따져보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대회가 끝난 뒤 휴가를 즐길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의 16강 상대는 '무적함대' 스웨인이다. 스웨인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3승을

챙기며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다. 5골 득점에 실점은 없었다.

16강 대진이 완성되면서 FIFA랭킹 2위 프랑스와 3위 벨기에의 맞대결이 7월 2일 오전 1시(한국시간) 성사돼 빅매치로 관심을 끈다. 벨기에에는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는 케빈 데 브라워너(맨체스터 시티), 공격수 로멜로 루카쿠(AS 로마), GK 티보 크루투아(레알 마드리드) 등이 버티고 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고진영·김주형 등 파리올림픽 출전 5명 확정

7월 개막하는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한국 골프 남녀 국가대표 선수들이 확정됐다. 대한골프협회는 27일 "2024 파리 올림픽 파견 선수단 명단을 확정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며 "올림픽 참가 자격은 국제골프연맹



(IGF)의 남녀 세계 랭킹에 기반한 올림픽 골프 랭킹에 따라 정했다"고 발표했다.

파리올림픽에 나갈 한국 골프 국가대표는 남자부 김주형과 안병훈, 여자는 고진영(사진), 양희영, 김

효주로 구성됐다. 안병훈은 2016리우올림픽에 이어 8년만에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으며, 여자부 고진영과 김효주는 2020도쿄 올림픽에 이어 3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미국여자프로골프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랭킹 5위로 점프한 양희영

은 8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대회는 남자부가 8월 1일부터 나흘간, 여자는 8월 7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르골프 나쇼날 올림픽 코스에서 열린다. 협회는 이번 대회 포상금으로 금메달 3억 원, 은메달 1억5000만 원, 동메달 1억 원 포상금을 책정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두 달만의 5번 타자 김하성 끝내기 안타

팀 8-5 승리 큰 역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사진)이 기습 번트 안타로 선제 타점을 올리고 끝내기 안타에 팀의 마지막 득점도 수확했다. 김하성은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



크에서 벌어진 MLB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때리고 타점 1개, 득점 2개를 올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BEYOND GOLF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